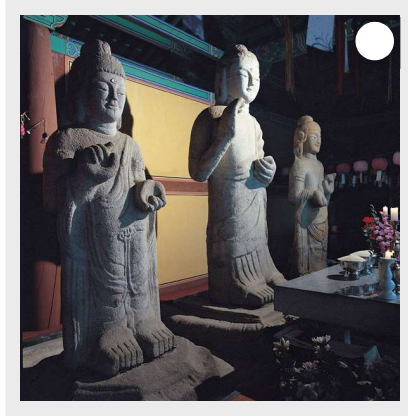


# 후삼국의 통일 태조 왕건, 신라·후백제·발해를 아울 러 한반도를 재통일하다

936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 1 개요

신라 하대 혼란한 정국 속에서 900년(효공왕 4) 견훤(甄萱, 867~936)의 후백제(後百濟), 901년(효공왕 5) 궁예(弓裔)의 후고구려(後高句麗)가 건국되며 후삼국(後三國)이 정립되었다. 918년 궁예를 축출하고 왕건(王建, 877~943)이 고려(高麗)를 건국하면서 국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후 고려의 태조가 된 왕건은 935년에는 신라를, 936년에는 후백제를 통합하였고, 이로써 8세기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다시 한 번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 2 고려와 후백제의 갈등이 시작되다

9세기 말 신라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며 전국적으로 소요가 발생하였고, 사회 혼란이 심해지며 독립적인 지방 세력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900년(효공왕 4) 견훤(甄萱)의 후백제(後百濟), 901년(효공왕 5) 궁예(弓裔)의 후고구려(後高句麗)가 건국되었다. 이 국가들은 신라와 더불어 후삼국(後三國)이라 일컬어지며 마침내 후삼국시대의 막이 올랐다. 918년 왕건(王建)이 궁예를 축출하여 후고구려를 몰락시키고 고려(高麗)를 건국한 이후에도 신라·후백제·고려 세 나라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이는 왕건이 935년(태조 18)에 신라를, 936년(태조 19)에 후백제를 통합하여 후삼국을 재통일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신라의 국력이 쇠퇴한 가운데,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왕건의 고려와 견훤의 후백제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전개되었다.

고려와 후백제의 관계는 시기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고려가 건국된 직후, 양국은 사신(使臣)을 파견하고 선물을 교환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견훤은 왕건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일길찬 민합(一吉粲 閔訢)을 파견하였고, 왕건은 광평시랑 한신일(廣評侍郞 韓申一)을 보내 후백제의 사신을 영접하게 하였다. **관련사료** 이후 925년(태조 8) 10월에는 고려와 후백제가 조물성 전투(曹物城 戰鬪)에서 충돌하였으나 양국은 화친을 맺고 인질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견훤은 자신의 사위인 진호(眞虎)를 인질로 삼아 보냈고, 고려에서는 왕건의 사촌동생인 왕신(王信)이 백제로 보내졌다. **관련사료** 하지만 926년(태조 9) 4월 견훤의 인질인 진호가 병에 걸려 죽자, 견훤은 고려에서 인질을 고의로 죽였다고 생각하여 후백제에 머물던 왕건의 인질을 죽여 보복했다. **관련사료** 이 시기부터 양국 간에 갈등이 다시 시작되어 적대 관계가 형성되